

사진기를 들면 '영화감독 박찬욱'은 잊게 됩니다

October 2, 2021 | 김주영 기자

Page 1 of 1

사진기를 들면 '영화감독 박찬욱'은 잊게 됩니다

부산에서 첫 사진전 여는 박찬욱 8년전부터 찍은 작품 30여점 전시 "사진은 나를 버티게 하는 돌과구 영화와는 별개로 감상해주세요"

"관객이 볼 땐 제 영화나 사진이나 거서 거기일 거예요. 저란 창작자의 속성 때문이죠. 누구는 접어놓는 방수포가 하나도 안 아름답다고 하겠지만, 제 포인트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이예요. 영화 '아가씨'의 흥악한 세계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냈듯 사진도 그럴 겁니다."

영화감독 박찬욱(58)이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사진작가로 변신해 '관객'들과 만난다. 오는 12월 19일까지 부산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 '너의 표정 (Your Faces)' 이다. 1일 전시장에서 만난 그는 "영화는 각본이 짜여 있고, 때론 감독이 설명도 하고, 카메라도 다양한 장치로 움직임을 확장하지만 사진은 정해진 한 순간의 이미지, 오히려 단순해서 역설적으로 관객이 영화보다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영화 '스토커'를 촬영하던 2013년부터 최근까지 그가 직접 찍은 사진 30여 점을 선보인다. 영화를 찍을 때처럼 구도는 물론이고 조명과 질감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만의 색깔이 묻어난다. 가지가 앙상할 정도로 볼품없는 관목은 박 감독의 손을 거쳐 조명을 받고 주인공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이날의 하늘과 빛, 조명이 똑같은 나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인공처럼 돋보이는 순간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스페인인 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두대가 꽃혀 있는 모습을 보곤 두 명의 얼굴



김주영 기자·부산 국제갤러리

박찬욱 감독은 "1000분의 1초 같은 찰나의 순간을 담은 사진은 치밀하게 계산돼 만들어지는 영화에 비해 단순하고 유연한 요소가 많아 관객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더 즐겁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아래 사진은 ①크로아티아의 어느 강 풍경을 담은 'Face 6'와 ②차량 조수석의 마네킹이 인상적인 'Face 106'.



표정을 떠올렸다. 모로코 여행 중 새벽 산책길에 본 어느 레스토랑의 접혀있는 파라솔 10여 개에선 이슬람 유령을 잡아냈다. 변산반도의 바위는 머리카락과 턱수염이 난 남자의 옆얼굴을 닮았다. 박 감독은 "사진 속 피사체와 내가 일대일로 만났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객들도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래된 소파를 찍은 '워싱턴 DC(2013)'는 스스로의 경험을 투영한 사진이다. "영화 '박쥐' 홍보로 워싱턴 DC에 갔을 때였어요. 일정이 많아 지쳐 있었는데, 관객과의 행사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저 소파를 봤죠. 만사를 제쳐두고 앉아서 쉬고 싶던 제 느낌이 그대로 담긴 사진이에요."

그는 평소 영화를 찍을 때도 관객이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는다고 착각할 정도로 디테일한 질감 표현을 강조한다. 사진도 그런 점을 최대한 살렸다. 발리의 해변에서 본 바위는 공포영화 속 괴물처럼 다가왔다. 그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바위 표면의 거친 질감이 도드라지도록 찍었다. 그에게 사진은 영화감독이라는 무게를

잊게 해주는 돌과구였다.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걸 좋아해 여행도 안 좋아한다"며 "일 때문에 해외를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은 게 나를 버티게 해준 힘이였다"고 했다. "영화는 여럿이 함께한다는 점이 좋기도 하지만 손발이 맞지 않을 땐 한없이 힘들다"며 "몇 십억, 몇백억씩 들어가는 돈까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도 했다. "사진은 못해도 나만 피해를 보니, 사진만 하는 분들보다 내가 더 즐겁게 찍는 사진작가일 것"이라며 웃었다.

박 감독은 자신의 사진을 볼 때 영화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철저히 계산돼 만들어진 영화 속 인물들과 우연과도 같은 찰나의 만남으로 찍은 사진은 달라도 제 사진을 보고 저마다 느끼는 감정들이면 충분합니다." 부산=김주영 기자